

아동기 학대경험, 자기비난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 of Child Abuse and Self-Criticism over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hood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pathy Experiences

Won-Ju Park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학대와 자기비난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경험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123명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 대인관계문제, 자기비난, 공감경험에 대한 설문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대 경험, 자기비난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 학대, 공감경험, 이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에 대해 공감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는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비난은 완전매개를 보였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경험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학대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경험은 유의미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린 시절 지속적인 학대 경험은 자기비난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받는 공감경험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학대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의의, 그리고 상담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self-critic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hood. Data about child abuse, interpersonal problems, self-criticism, and empathy experienc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123 adults in South Korea.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the data on child abuse and self-criticism were hierarchically conducted.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the data on child abuse, empathy experiences, and their interaction terms were hierarchically conducted. To tes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SPSS macro model 7 analyses of the data on child abuse, self-criticism, empathy experienc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hild abuse increased interpersonal problems, and self-critic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elf-criticism. Also,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self-critic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Empathy experiences in adulthood can decrease the negative effect of child abuse. Ways to decrease the negative effect of child abuse and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Child Abuse, Self-Criticism, Empathy Experiences, Interpersonal Problems, Moderated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gyang cyber Univ.)

email: parkwj@hycu.ac.kr

Received June 2, 2022

Accepted August 3, 2022

Revised July 5,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 반복적인 학대를 겪은 사람들은 성인기에 분노,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작용을 더 많이 겪으며 [1-3],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더 높다 [4,5].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학대 외상 경험이 성격 발달과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능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안정 애착 및 자기개념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6,7]. 실제로 연구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안정적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6], 부정적 자기개념[7]과 높은 자기비난[8]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기에 경험했던 학대 외상은 성인기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안정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하고 유연한 자기개념 정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7]. 이렇게 어린 시절의 불행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겪은 학대경험은 대인관계에서의 외상적 경험으로 기억되며, 이는 성인기에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나가기 어렵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대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찾는 것은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성인기에도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1 아동학대와 대인관계문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나 잘못된 양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9]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

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 우울, 위축,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 등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5]. 특히 이들은 대인관계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인갈등상황에서 대화보다는 폭력을 사용하고[10],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자기표현에 소극적이어서[11] 또래관계 소외 [12], 관계적 공격성[13] 등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더 높다. 뿐만 아니라, 신체학대는 성인기 분노 및 공격성을 통해 폭력적 대인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1], 방임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기도 한다[14]. 또한, 정서학대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내적 표상을 왜곡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5].

대인관계문제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우울, 불안, 소외감, 부적절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16],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의 행복감과 건강한 심리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및 조절하는 변인들을 찾음으로써 이러한 관계성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2 자기비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세상에 대해 고립감, 무력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적절감을 형성하게 된다[17]. 학대를 겪는 과정에서 아동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학대의 주체인 부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내가 모자라서 그런거야' 등과 같이 자신을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학대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8]. 그러나 학대하는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고 나아가 자기비난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대 외상은 주체적 자기, 대상적 자기, 관계적 자기, 자기조절 능력 등의 자기체계에 있어 손상을 일으킨다[19]. 국내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체계 손상이 매개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0]. 이러한 자기

체계의 손상은 자기가치감 저하, 자기비난, 자기증오 등의 부정적 자기감을 유발한다[21].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부정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며[7], 자기비난에도 영향을 미친다[8].

자기비난은 역기능적 성격특성[22]이자, 좌절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대처전략[23]으로, 자기비난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24]. 자기비난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안전성을 위협하면서 타인의 비난과 비평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죄책감, 슬픔, 무망감, 외로움, 낮은 긍정정서를 경험하며 타인의 놀림과 비판적인 말에 예민하다[25]. 이러한 자기비난은 우울, 불안, 섭식장애, 경계선적 성격 장애 등 심리적 부작용뿐 아니라 대인관계경험의 한 영역인 상담관계에서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6]. 자기비난이 높은 내담자들은 두려움,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자기개방을 하기가 어렵고 이는 작업동맹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여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26,2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아동기 학대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인초기 연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한다는 보고가 있다[28]. 따라서 아동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변인을 모색하는 것은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공감

자기비난적인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치료자가 치료관계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해받는다라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상담을 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26]. 즉,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 신뢰감과 안전감을 얻고 자기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감적 개입은 수치심과 같은 강력한 부정적 정서로 고통받는 자기비난적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경험을 타당화시켜주고 자신에게 재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고통을 겪고, 자기비난의 영향과 자기체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서조절에 어려

움을 겪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공감과 수용을 통해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29]. 즉, 아동기 학대로 인해 자기비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과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고 머물러 주는 것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일치하게 느끼고 [30], 그 사람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31]. 이러한 공감을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경험했던 고립감과 불안, 외로움 등이 완화되고 나아가 불안정 애착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에서 이해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할 경우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부정적 대인관계 표상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이를 통해 자기비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하는지와 자기비난의 매개경로를 공감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기 학대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적용한 상담적 개입법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동기 학대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기비난의 관계에서 공감 경험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3. 아동기 학대 경험, 자기비난,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공감 경험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심리학 관련 과목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 중 설문 참여에 동의한 성인 123명을 대상으로 강의시스템상의 설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 23세에서 63세로, 평균 44.5세

이며, 남성 22명(18%), 여성 101명(82%)이었다.

2.1.2 측정 도구

2.1.2.1 아동기 학대 경험 척도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백경임(1998)[32]이 개발하고 이주성(2004)[33]이 수정한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는 신체학대(10문항), 정서학대(9문항), 방임(9문항), 성학대(9문항), 부모 간 폭력 목격(10문항)의 5가지 하위유형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0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4점) 등의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2.1.2.2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

자기 비난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Ishiyama와 Munson(1993)[34]이 개발하고 이혜미(2008)[35]가 변안한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Self-Critical cognition scale; SCCS).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는 부정적인 자기진술을 측정하는데, 부정적인 자기 정보, 부정적 정보를 다루는데 실패함, 부정적 자기정보에 대한 과일반화, 객관적인 지각의 손실과 자기비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13문항에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관련 정보에 자기비판적 사고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혜미(2008)[35]는 원척도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뺀 10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다. Ishiyama와 Munson(1993)[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이다.

2.1.2.3 공감 척도

(BLRI: Barre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수용 혹은 존중을 받는지, 또 정서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감받고 또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rett-Lennard의 '관계 질문지'(Relationship Inventory)[3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Barrett-Lennard가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존중과 공감,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967년에 만들었으며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왔다. 현재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등 모든 성장, 조력적인 관계를 측정하는데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박남숙[37]이 부부용으로 번역한 것을 배우자, 연인, 친한 친구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존중, 공감, 일치성의 3요인 중 공감에 해당하는 16문항이며, 리커트식 6점 척도이다. 박남숙[37]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6, 공감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공감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1.2.4 대인관계문제 척도

대인관계 문제 평가를 위해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Villasenor(1988)[3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s(1990)[39]가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홍상황 등(2002)[4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4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1-.89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대인관계 문제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2.1.3 자료 분석

전체 설문 참여자 123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 분석을 했다. 먼저 윈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경험, 자기비난, 공감, 대인관계문제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 model 7을 활용하여 공감 수준에 따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분석

아동기 학대 경험, 자기 비난,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 경험, 대인관계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Table 1). 그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2미만이고, 첨도는 절대값이 7미만으로 본 연구 자료는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41]. 각 변인의 평균치는 학대가 1.33(신체학대 1.22, 정서학대 1.32, 방임 1.45), 자기비난 2.65, 공감경험 3.81, 대인관계문제 3.01이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기 학대경험은 자기비난($r=.43, p<.001$), 대인관계문제($r=.31,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경험($r=-.30,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비난은 공감경험($r=-.51,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대인관계문제($r=.63, p<.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감경험은 대인관계문제($r=-.52,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학대경험을 많이 할수록 성인기에 자기비난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공감을 적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경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3)

	1	2	3	4
1	1			
2	.43***	1		
3	-.30***	-.51***	1	
4	.31***	.63***	-.52***	1
M	1.33	2.65	3.81	3.01
(SD)	.41	.75	.71	.73
skewness	2.14	.28	-.48	-.12
kurtosis	5.11	-.61	.36	-.12

* $p < .05$, ** $p < .01$, *** $p < .001$

1. abuse
2. self-criticism
3. empathy
4. interpersonal problems

2.2.2 아동기 학대, 자기비난,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공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

2.2.2.1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고, 이들 변인간을 매개하는 변인의 간접효과는 조절한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42]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기 학대와 대인관계문

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을 독립변인에 투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 공감경험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기 학대: $\beta=.17, p<.05$; 공감경험: $\beta=-.47, p<.0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아서($\beta=.33, p>.05$)(Table 2), 조절된 매개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키며,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경험은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지만, 성인기의 공감 경험이 아동기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child abu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N=123)

D.V.		I.V.	β	R^2 (adj R^2)	F
i.p.	step 1	abuse	.17*	.30 (.28)	25.18***
		empathy	-.47***		
	step 2	abuse	-.15	.30 (.28)	16.97***
		empathy	-.68*		
		abuse × empathy	.33		

* $p < .05$, ** $p < .01$, *** $p < .001$

i.p. : interpersonal problems

2.2.2.2 아동기 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 효과

아동기 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학대는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beta=.31, p<.001$)을 미쳤다. 그러나 자기비난과 아동기 학대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아동기 학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beta=.05, p>.05$) 자기비난은 유의미한 영향($\beta=.6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Table 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계수는 .47이었

고,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 모형에서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ism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child abu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N=123)

D.V.	I.V.	β	<i>t</i>
self-criticism	abuse	.43***	5.16***
interpersonal problems	abuse	.31***	3.58***
interpersonal problems	abuse	.05	.66
	self-criticism	.61***	7.77***

p* < .01, *p* < .001

Table 4. Bootstrapping : mediating effect of self-criticism (N=123)

variable	indirect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self-criticism	.47	-.14	.24	.80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기비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2.2.2.3 아동기 학대와 자기비난의 관계에서 공감의 조절 효과

아동기 학대와 자기비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을 독립변인에 투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 공감경험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은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기 학대: $\beta=.30, p<.001$; 공감경험: $\beta=-.42, p<.0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beta=.88, p<.05$)(Table 5).

즉, 아동기 학대경험은 성인기 자기비난을 증가시키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경험은 자기비난을 감소시킨다. 또한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child abuse and self-criticism (N=123)

D.V.		I.V.	β	R^2 (adj R^2)	<i>F</i>
s.c.	st ep 1	abuse	.30***	.34 (.33)	30.93***
		empathy	-.42***		
	st ep 2	abuse	-.54	.37 (.35)	23.21***
empathy		-.98***			
abuse.x empathy		.88*			

p* < .05, *p* < .01, ****p* < .001
s.c. : self-criticism

2.2.2.4 아동기 학대와 자기비난,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된 매개 효과

아동기 학대와 자기비난,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와 공감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beta=.45, p<.05$)했으며, 자기비난은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임이 나타났다($\beta=.59, p<.001$)(Table 6). 즉, 아동기 학대가 대인관계문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효과를 보이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공감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Table 6.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self-critic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N=123)

D. V.	Valuable	β	<i>F</i>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s.c.	abuse	-.99	23.21	-2.31	.335
	empathy	-1.04***		-1.57	-.51
	abuse x empathy	.45*		.07	.82
i.p.	abuse	.09	39.69	-.18	.37
	self-criticism	.59***		.44	.74

p* < .05, *p* < .01, ****p* < .001
s.c. :self-criticism
i.p. :interpersonal problems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감경험 수준의 평균값(M)과 1 표준편차 위(M+1SD)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

의미했으나, 1 표준편차 아래(M-1SD)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공감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는 커졌다(Table 7). 이는 공감경험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 아동기 학대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효과가 공감경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 학대가 자기비난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성인기 공감경험이 조절하는 것은 공감경험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과 자기비난의 관계에서 공감 경험의 조절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조절효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공감경험 고집단과 중집단을 각각 상위 25%, 중위 25%로 했다. 또한 학대경험은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별 자기비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Fig. 1)에 의하면 학대경험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비난은 높아진다. 또한 공감경험 수준이 중간인 사람에 비해 높은 수준일 경우 학대경험 수준의 증가에 따른 자기비난의 증가 경향이 더 완만함을 알 수 있다.

Table 7.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child abuse at values of empathy experience (N=123)

variable	indirect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1SD (3.10)	.24	.15	-.07	.52
M (3.81)	.43	.13	.21	.73
M+1SD (4.52)	.62	.19	.29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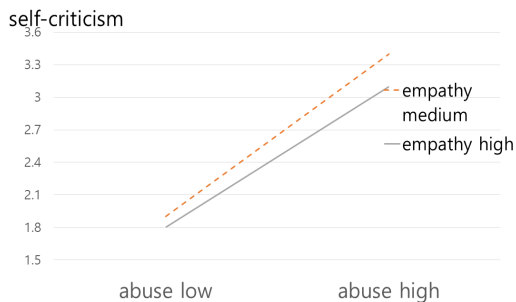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abuse and self-criticism (N=123)

3.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와, 공감경험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 학대경험, 대인관계문제, 자기비난, 공감 경험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학대경험은 대인관계문제, 자기비난과 정적 상관, 공감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비난은 대인관계문제와는 정적 상관을, 공감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감경험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대인관계문제 및 자기비난 수준이 높아지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 경험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비난을 많이 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고 공감 경험은 낮으며, 공감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기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비난은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기에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학대경험과 자기비난의 관계에서 공감경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감경험은 학대와 자기비난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기비난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영향은 공감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완화됨을 의미한다.

넷째,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에 대한 공감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대경험은 자기비난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감경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공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는데, 공감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는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부모가 폭력 등의 신체적 학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모욕하거나 유기불안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을 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들은 부당한 학대에 대해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17,18].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때로는 분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즉 반복적인 학대 경험을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하는 자기비난적 경향성은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비난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들이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 공감경험을 할 경우 그 영향력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학대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안전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거부민감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11,12].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상대방이 아닌 자기를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가까운 타인에게 공감적 이해를 경험하게 되면 관계 속에서 경험하던 유기불안이나 소외감 등이 완화되면서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고립감과 소외감이 감소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29]. 뿐만 아니라 공감경험은 자기와 대상에 대한 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기비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경험이 자기비난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까운 타인들로부터 공감받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대경험이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고 나아가 대인관계문제의 감소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가 없지만, 공감수준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받을수록 학대경험과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학대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관계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타인들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받고 공감받으면서 과도

한 자기 비난이 감소된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면서 대인관계문제들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영향력은 매우 큰데, 공감받는 경험이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성인기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학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과 이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성인기 자기비난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이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대인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이 뭘 잘못한게 아닐까 혼자 고민하고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17,18]. 이것은 관계에서 더욱 소외되게 만들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하고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준다면 이들은 자신의 내적 고통이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수용하며 과도한 자기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에서 유능감을 높여주고 균형잡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부당한 학대를 당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하는 왜곡된 인지적 대처방식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대경험자들은 갈등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더 부정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우울해지며,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 공격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도한 자기비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게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감경험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자기비난을 하면서 어린시절의 괴로운 기억들을 재경험하고 있을 때에,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준다면 그들은 혼자만 겪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관계에서의 단절감과 소외감이 감소되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증진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경험자가 아니라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대경험을 했던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약한 수준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즉 간헐적이지만 부당한 체벌과 욕설, 정서적 모욕과 무시, 잘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등도 심리정서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심리상담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주양육자에게 일관성 있는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및 대인 표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상담자와의 상담 관계에서 공감, 수용, 지지를 받으면 왜곡된 대상 표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43].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지지해 주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비난과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이해받고 수용받고 공감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수용이 증가되고 불안과 고립감이 감소되면서 부정확하고 과도한 자기비난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대인관계문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공감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한계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 있어 성 차를 보고한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분명하게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대경험을 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학대경험의 평균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와 대인관계문제의 대략적인 관계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유경험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3-5]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8,9], 이는 임상군을 연구대상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아동학대 경험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학대경험, 자기비난,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비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또 다른 매개변인,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대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에 겪은 학대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와 자기상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이는 학대의 지속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대를 경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향한 관심과 전문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경험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과 함께 이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공감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학대경험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실시되어서 이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이것을 적용한 심리적 개입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W. Wilson, & C. S. Widom,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illicit drug use in middle adulthood: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fou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8, pp. 340-354, 2009. DOI: <http://dx.doi.org/10.1007/s10964-008-9331-6>
- [2] B. Egeland,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Vol 33, No 1, pp. 22-26, 2009.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8.12.004>
- [3] K. Park,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2, No 2, pp. 131-147, 2005.
- [4] E. Cho,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mediated by self-efficac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5] H. M. Yoon.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8, No 1, pp. 173-206, 2017.
- [6] D. Cicchetti, & S. L. Toth, "A developmental

-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4, No 5, pp. 541-565, 1995.
- [7] Y. Lee, & H. Chang, "The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experience and bordering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2, No 3, pp. 241-255, 2016.
- [8] H. Kim, H. Choi, & S. Han, "The influence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adulthood depression and aggression: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9, No 1, pp. 1-29, 2018.
- [9] M. Hong, & H. Kim, "Child abuse and neglect: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28, pp. 47-59, 2007.
- [10] R. S. Paul, & H. K. Kelly, "Bulling in school: An overview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schools*, Vol 27, No 2, pp. 101-110, 2005.
- [11] H. K. Jung, & S. J. Son, "Impact of self-esteem on perceived happiness among emotionally abused children: Does withdrawal matter?",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Vol 41, pp. 195-219, 2018.
- [12] Y. H. Oh,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impact of child-abuse to the delinquency and peer rejectio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12.
- [13] R. Y. Bae, & J. Y. Choi,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Problems,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Anger Rum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Studies*, Vol 32, No 1, pp. 29-52, 2018.
- [14] H. Oh,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on problem drinking in later lif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15] K. Kwon, & M. Jung, "The effect of parents' emotional abus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early adulthood: Mediating effects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maladaptive anger cop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4, pp. 389-407, 2017.
- [16]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no, & V. S. Villaseñ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6, pp. 885-892, 1988.
DOI: <http://doi.org/10.1037/0022-006X.56.6.885>
- [17] K. Horney, *Our inner conflicts*, W. W. Norton & Company, 1993.
- [18] H. Levenson, "Time-limited psychodynamic therapy", N. Jung & E. Byun, Hakjisa, 2008.
- [19] S. Harter,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9.
- [20] H. Kim, & H. Ho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internalized sham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6, pp. 321-340, 2017.
- [21] J. G. Allen, *Traumatic relationship and serious mental disorder*, Chichester, UK: Wiley 2001.
- [22] T. A. Powers, D. C. Zuroff, & A. Topciu, "Covert and overt expression of self-criticism and perfectionism and their relation to dep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pp. 61-72, 2004.
DOI: <http://doi.org/10.1002/per.499>
- [23] R. A. Thompson,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3, pp. 269-307, 1991.
DOI: <https://doi.org/10.1007/BF01319934>
- [24] W. J. Whelton, B. Paulson, & C. W. Marusiak, "Self-criticism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Vol 20, No 2, pp. 135-148, 2007.
DOI: <http://doi.org/10.1080/09515070701412423>
- [25] D. M. Dunkley, & A. Kyriassis, "What is DAS self-critical perfectionism really measuring? Relations with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4, No 6, pp. 1295-1305, 2008.
DOI: <http://doi.org/10.1016/j.paid.2007.11.022>
- [26] D. Kannan, & H. Levitt, "A review of client self-criticism in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Vol 23, No 2, pp. 166-178.
DOI: <http://doi.org/10.1037/a0032355>
- [27]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unconditioned self-acceptance and self-criticism*,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21.
- [28] D. Lassri, G. Cohen, P. Luyten, & G. Shahar,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on romantic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A double mediation model involving self-criticism and attach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Vol 8, No 4, pp. 504-511, 2016.
DOI: <https://doi.org/10.1037/tra0000134>
- [29] W. Park,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facilitativ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mother's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255-264,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7.255>
- [30] M. E. McCullough, E. L. Jr. Worthington, & K. C. Rachal,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3, No 2, pp. 321-336, 1997.
DOI: <http://doi.org/10.1037/0022-3514.73.2.321>

- [31] D. H. Buie, "Empathy: Its nature and limit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Vol 29, pp. 281-307, 1981.
DOI: <http://doi.org/10.1177/000306518102900201>
- [32] K. Baik. "The validation of property of the modification of CTS2 for use of children on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6, No 2, pp. 77-89. 1998.
- [33] J. Lee,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s in childhood on violent behavior : a test of mediation effect of dissociation and alexithymia*,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5.
- [34] F. L. Ishiyama, & P. A. Muns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critical cogni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 Vol 72, pp. 147-154, 1993.
DOI: <http://doi.org/10.2466/pr0.1993.72.1.147>
- [35]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self-criticism*,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21.
- [36] G. T. Barret-Lennard,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a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76. 1967.
- [37] N. S. Park, *Developmen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Couple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38]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no, & V. S. Villasen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6, pp. 885-892,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39] L. E. Alden, J. S. Wiggins, & A. L. Pincus,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5, pp. 521-536. 1990.
DOI: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88>
- [40] S. Hong, E. Park, Y. Kim, J. Kwon, Y. Cho, & Y. Kim,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4, pp. 923-940, 2002.
- [41] P. J. Curran, S. G. West, &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 1, No 1, pp. 16-29. 1996.
DOI: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42] S. Jung & D. Seo,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5, No 1, pp. 257-282. 2016.
- [43] N. G. Hamilton, *Self and others :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Maryland: Jason Aronsen Inc. 1990.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Feb. 1999 : Yonsei Univ., Psychology, MS
- Feb. 2011 : Yonsei Univ., Psychology, PhD
- Mar. 2012 ~ Aug. 2013 : Georgi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Mar. 2014 ~ current : Hanyang cyber Univ.,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Research Interests〉

Psychodynamic Therapy, Counseling Case Study